

# 구역예배 순서지

2022.11.23(수)

-일 시 : 정해진 날 -장 소 : 정해진 장소 -인 도 : 구역장 또는 강사

- 묵상기도 / 각 자
- 기 원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경배찬송 / 새254장(통186장) “내 주의 보혈은”
- 기 도 / 가족 중에서
- 주일말씀과 삶의 나눔 / 주일예배 말씀의 은혜와 삶을 서로 나눕니다.
- 성경봉독 / “마태복음(마)26:47-56(p.47) 가족 중에서
- 말 씀 /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나라”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 1. 가롯 유다의 별칭은 무엇이며, 가롯 유다가 예수님에게 데려온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때는 언제입니까?(47절,참조 49-50절)

가롯 유다는 ‘열 둘 중에 하나’라는 가롯 유다의 별칭으로 불려 졌는데(막14:43,눅22:47) ‘12제자 중의 한 명’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자가 배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열 둘’이라는 숫자는 지극히 명예로운 대명사이지만 그 중의 ‘하나’는 치욕스런 대명사였고, 그래서 ‘예수를 파는’ 자라고 했습니다(요18:2). 이러한 가롯 유다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를 데리고 왔으며 그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47절하).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가르치시던 때였습니다(47절상). 가롯 유다가 제자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여 파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친숙한 관계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서 ‘~중의 하나’라는 불명예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가롯 유다의 관계는 구세주와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선생과 직업적인 동료 정도의 친구관계(헬,헤타이로스)에 불과한 적당한 거리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마26:49-50).

## 2. 가롯 유다가 꾸민 일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48-50절)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사로잡기 위해서 군호로 자기가 입맞춤의 인사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임을 표시하는 신호로 하고(48절) 예수님께 나아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하고 입을 맞추니(49절) 예수님께서서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하셨고(50절상), 무리들이 다가와서는 예수님을 붙잡고 체포했습니다(50절하).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인사법이었었는데(눅7:38,15:20,행20:37) 유다에게는 ‘배반과 살인의 가증한 술책’으로 사용됩니다. 선한 행위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거짓이요, 속이는 것이요, 가장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고 그러나 그 끝의 결과는 그 행위대로 되는 것입니다(고전

11:13-15).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행위로 선한 것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3. 예수님께서 잡힐 때에 벌어진 일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무엇입니까?(51-54절)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인 베드로(요18:10)가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요18:10)의 오른쪽 귀를 쳐서 베어 떨어뜨려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51절).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52절). 이 말은 동서 고금의 역사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명언이면서도 무력과 폭력을 통해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스스로 형벌을 초래한다는 일반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겔35:6,계13:10).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이라도 열 두 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54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18:11). 로마의 군단은 보병 6,100명, 말726필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12군단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약자의 모습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빌2:6-8).

## 4.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고, 이 사건의 목적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마친 후 제자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56절)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나고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칠 때에도 잡아가지 않았는데(55절) 그렇게 된 이유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56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마친 후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57절). 제자들은 검의 사용을 금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행하지 않으면서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여 도망하고 맙니다.

### ● 나눔과 기도 / 다같이

- 1.세상의 관점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게 하소서.
- 2.추워지는 날씨에도 잘 적응하고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어 갈 때 우리의 영적인 삶도 회복되게 하소서.
- 3.재개발조합의 사업이 속히 잘 진행되고, 교회의 건축 준비도 잘 되게 하소서.
- 4.정책당회(11/26)가 은혜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 5.일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위선자들과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주소서.
- 6.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멈추고, 자유와 진리가 이기게 하소서.

### ● 마무리 기도 / 말은 자 중에서

- 파송찬양/새370장(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기도문: 다같이